

## Ⅱ.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은 2010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외 현지법인 17개, 사무소 29개, 지점 8개를 운영하며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8년 9월 말 현지법인 9개에 비하면 현지법인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점포 총자산은 2014년 6월 기준 29억 5,960만 달러로 2013년 6월에 비해 10억 3,230만 달러 증가하였다. 진출 국가들은 중국, 미국, 아시아 국가들인데 본 장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해외보험영업 현황을 아시아 지역과 미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sup>6)</sup>

〈표 Ⅱ-1〉 2014년 6월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총자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2013년 6월	2014년 6월	증감
생명 보험	삼성	946.1	1,283.8	337.7
	한화	184.5	213.1	28.6
	교보	0.3	0.3	-0.04
	합계	1,134.0	1,497.2	366.2
손해 보험	동부	201.8	256.5	54.7
	메리츠	8.7	11.4	2.7
	삼성	775.3	1,093.6	318.3
	LIG	386.9	470.0	83.1
	코리안리	223.0	410.9	187.9
	현대해상	331.6	717.2	385.6
	합계	1,927.3	2,959.6	1,032.3
	합계	3,061.3	4,459.9	1,398.5

자료: 금융감독원(2014. 10. 19).

6) 아시아지역 해외사업 현황은 전용식·조영현·채원영(2014)의 내용을 발췌함.

## 1. 아시아 지역

〈표 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삼성화재가 2005년에 진출하였고 2014년 6월 동부화재가 중국 안청손해보험에 지분투자를 하면서 진출하였다. 삼성화재의 2013년 중국 원수보험료는 6억 1,170만 위안으로 현지 시장점유율은 0.1%에 불과하다. 자동차보험 사업은 심천, 소주, 청도 등에 지점 개설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장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중국 현지법인 원수보험료의 14.5% 수준에 불과하다. 현대해상은 북경에서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사업을 하고 있다. 원수보험료는 9,840만 위안이며 중국 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은 0.02%에 불과하다. 반면 KB손해보험은 강소성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손해보험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다.

〈표 II-2〉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해외사업 현황

구분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
중국	0.10%	—	0.02%	0.02%	—
	독립법인	지분투자 <sup>2)</sup>	독립법인	독립법인	—
	2005. 4	2014. 6	2007년	2008년	—
베트남	3.75%	—	—	—	—
	독립법인	—	—	—	—
	2003년	—	—	—	—
인도네시아 <sup>3)</sup>	0.47%	—	—	0.32%	0.14%
	합작법인	—	—	합작법인	합작법인
	1997년	—	—	1997. 12	1998년

주: 1) 첫 번째는 시장점유율, 두 번째는 진출방식, 세 번째는 진출시기임.

2) 동부화재는 중국의 안청순보 지분 15%를 최근 인수함.

3) 인도네시아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비 각사의 원수보험료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베트남 시장에는 삼성화재가 사업을 하고 있다. 2013년 시장점유율은 3.75%이며 현지 19개 회사 중 6위, 외자계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별 시장점유율은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의 경우 25%이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0.06%에 불과하다. 베트남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우 현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집중도가 높아 경쟁도는 낮다. 인도네시아 시장에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 화재가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는 찾기가 어려웠다.

## 2. 미국

### 가. 개요

삼성, 동부, KB손해보험이 지점을 설립하여 미국 사업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2002년 미국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사업 지역을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로 확대하였고 화재, 해상 등 기업성보험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원수보험료는 2002년 1,051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1,900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원수보험료의 절반 이상이 뉴욕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6년 총자산은 4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보험영업이익은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동안 635만 달러 증가하였다.<sup>7)</sup> 2014년 뉴욕지점이 RB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보험회사의 외국 지점 중 처음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보험감독국에 제출한 201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3,500만 달러의 자본금 지원을 받아 RBC비율이 216%로 상승하였다. 2014년 총자산은 2억 7,570만 달러, 경과보험료 7,07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판매 상품은 기업종합보험(Commercial Multiple Peril)이며 그 비중은 93%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1990년 뉴욕주에 지점을 개설하여 재물 및 상해보험, 해상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등을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에서 인수하고 있다. 2014년 총자산은 2억 1,363만 달러로 2013년 1억 8,060만 달러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경과보험료는 2014년 7,675만 달러로 2013년 5,876만 달러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7) Financial Examination Repor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Insurance, 2006.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원수보험료 355만 달러, 경과보험료 222만 달러, 손해율 56.05%, 시장점유율 0.18%를 기록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2005년 8월 하와이주 지점 설립, 2008년 캘리포니아 지점, 2010년 뉴욕 지점을 설립하며 미국 사업을 확대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9년 12월 사업허가를 받아 2011년부터 개인용 자동차와 화재,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을 인수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상업용 자동차보험을 시작하였다. 과거 한국자동차보험 시절부터 운영하던 괌 지점의 우수한 실적이 미국 사업 확대의 원동력이었고 하와이주에서는 파산한 현지 보험회사를 인수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였다. 2014년 미국 지점의 자산규모는 2억 677만 달러로 2013년 1억 5,852만 달러에 비해 30% 증가하였고 경과보험료는 2014년 9,653만 달러로 2013년 7,991만 달러에 비해 20.7%증가하였다.

〈표 II-3〉 2014년 말 기준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미국 지점 사업 현황

구분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해보험
지점설립 시기	1990	2005	2002
지점 설립 지역	뉴욕	하와이	뉴욕
총자산	2억 1,363만 달러	2억 677만 달러	2억 7,570만 달러
경과보험료 <sup>1)</sup>	7,675만 달러	9,653만 달러	7,071만 달러
보험영업이익	839만 달러 적자	1,339만 달러적자	7,634만 달러 적자
투자영업이익	205만 달러	198만 달러	535만 달러
순이익	454만 달러 적자	112만 달러 적자	7,071만 달러 적자

주: 1) 경과보험료는 재보험 출재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NAIC;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국.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 3사의 미국 지점 사업 규모는 총자산, 경과보험료 등에서 유사하고 보험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나. 자동차보험 사업 현황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 3사의 미국 사업 가운데 자동차보험 비중이 큰 회사는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이다. 전체 원수보험료 대비 자동차보험 비중은 삼성화재 11.5%, 동부화재 22.8%이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모두 현지 계열기업의 위험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화재의 경우 2014년 원수보험료<sup>8)</sup> 1억 5,870만 달러에서 기업종합보험(Commercial Multiple Peril)이 4,720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이 근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3,530만 달러,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2,160만 달러, 해상보험(Ocean Marine) 2,076만 달러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업용 책임보험 1,520만 달러이며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인수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책임보험은 인적손해에 국한된 담보이며 대물보험(Auto Physical Damage) 담보는 기후변화,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sup>9)</sup> 동부화재의 경우 2014년 원수보험료 규모는 1억 4,620만 달러인데 기업종합보험 8,370만 달러, 개인용 자동차 책임보험 310만 달러, 상업용 자동차 책임보험 2,220만 달러 규모이다. 삼성화재와는 다르게 주택소유자종합보험(1,670만 달러)을 인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화재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그리고 뉴욕에서 손해보험사업을 하고 있으며 뉴욕을 제외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지역에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사업을 하고 있다.

8) Direct Premium Written, Exhibit of Premium and Losses, NAIC 2014.

9) 이외에도 노폴트(No Fault) 담보인 개인신체상해보장(Personal Injury Protection) 상품은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차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신체상해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임.

〈표 II-4〉 국내 손해보험회사 미국 지점의 2014년 주요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삼성화재	동부화재
원수보험료	158.7	146.2
화재보험	0.56	6.4
주택소유자종합보험	—	16.7
기업종합보험(Commercial Multiple Peril)	47.2	83.7
근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35.3	4.3
해상보험(Ocean Marine)	20.7	—
기타 배상책임보험	13.5	1.9
제조물배상책임보험	21.6	—
자동차보험 합계	18.3	33.2
—	(11,5%)	(22,8%)
개인용 책임보험	—	3.1
상업용 책임보험	15.2	22.2
자동차 대물보험(Physical Damage)	3.1	7.9

주: 괄호 안은 원수보험료 대비 비중임.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재보험의 경우 두 회사 모두 외부 재보험회사에게 출재하는 규모가 상당한데 삼성화재는 2014년 8,562만 달러를 출재했고 동부화재는 5,281만 달러를 출재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동부화재는 3,320만 달러 중 1,270만 달러를 출재했고 삼성화재는 원수보험료 1,830만 달러 가운데 600만 달러를 외부 재보험회사에 출재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외부로부터 재보험을 수재하기도 하는데 기업종합보험에서 366만 달러 등 704만 달러를 수재하였다.